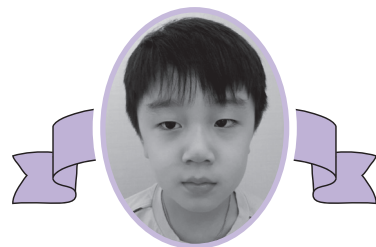


동상





내가 꿈



이민준 | 서울 자운초등학교 2학년

바닷가 포구에 사는 외할아버지 댁에 놀러간 나는 고기 잡는 모습이 보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고기 잡는 것 좀 구경시켜 주세요.” 나는 할아버지를 줄라 배를 타고 어장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어제 쳐놓은 그물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보다 쓰레기가 더 많이 딸려왔습니다. 쓰레기에는 비닐로 만든 과자봉지와 플라스틱 제품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많으니 고기가 잡혀야지.” 할아버지께서는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니 주름이 깊게 파였습니다. 어쩌면 그 주름은 내가 만든 것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소풍이나 나들이를 가면 과자를 먹고 봉지와 빨대를 그냥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며 어떻게 하면 우리 국토를 깨끗하게 가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니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운전을

자율주행으로 해놓고 한숨 자야겠구나. 어제 어른들 일을 도왔더니 몸이 무척 피곤하구나.” 2040년이 되자 이제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만 찍어주면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해 찾아갑니다. 자동차 사고를 걱정하는 일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금방 잠이 들었는데 어느새 내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시장님, 드디어 비닐과 플라스틱이 자연 분해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비서가 전하는 말을 듣고 나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내가 시장선거에 나오면서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비닐과 플라스틱이 흙과 24시간 이상 닿으면 자연 분해되는 기술을 개발해 우리 국토를 깨끗이 하겠다고. 그런데 그 기술이 성공을 거두었으니 이제는 우리 국토가 비닐과 플라스틱으로 더 이상 오염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 내가 어릴 때 우리가 함부로 버린 플라스틱 빨대가 거북이 코에 박힌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외할아버지의 한숨소리도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비닐을 이용해 농사를 지은 후 이를 처리하지 못해 온 국토가 비닐로 오염되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이제는 비닐이 자연 분해되니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국토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시장님, 오늘은 사랑아파트 준공식에 참석하셔서 한 말씀하셔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처음으로 지은 사랑아파트는 모든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받아 전환을 하는 아파트입니다. 예전처럼 태양에너지를 받기 위해 검은 집열판을 넓게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A4 용지만한 집열판으로 받아들인 빛에너지를 열이나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모든 가정에서 사용합니다. 며칠 동안 해가 나지 않을 때만 중앙에서 전기를 보내줍니다. 그러니 원자력발전소도 화력발전소도 필요가 없습니다. 조그만 수력발전소 한 개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예

전처럼 미세먼지도 없고 공기가 오염되지도 않을 겁니다. 더 좋은 건 원자력발전소가 없으니 위험하지도 않고 폐기물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전 국토가 깨끗해 사람이 살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짓는 모든 아파트는 에너지의 전부를 태양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야, 우리 국토가 이렇게 깨끗해졌으니 살기가 좋구나.” 나는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애, 민준아, 무슨 꿈을 꿔기에 만세를 부르고 난리냐?”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잠을 깨니 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운전을 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우리 국토였는데…….” 꿈을 깬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분리수거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모으면 자원이고 버리면 쓰레기로 국토를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들이 갔다가 돌아올 때는 주변을 청소해 쓰레기를 되가져왔습니다. 내가 꿈은 절대 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꿈은 이루어지고 우리 국토는 깨끗해질 것입니다.